



글 이명희

그림 도은민

장편소설 초대받은 여자

(25) 해원이 해원이 아닌 이유

수빈은 조심히 눈을 떴다. 중환자실이라 간호사들이 더러 왔다갔다 했지만 몸을 크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시선을 끌지는 않을 것이었다. 사실 김스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을 뜨고 싶었지만 겨우 참고 있었다.

선우와 화영이 응급차까지 함께 타고 올 줄은 몰랐었다. 응급차를 타고 오는 동안 선우는 내내 옆에서 수빈의 한쪽 손을 잡아 주었다. 아마 다른 손으로 해원의 손을 잡고 있었으리라.

“최송하지만 대일병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우가 묻자 구급대원은 자기들은 지정된 병원으로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었다. 모두 수빈이 의도한 것이다. 처음엔 겁을 주려고 서재 베란다로 끌고 간 거지만 최악의 경우 아래로 확 밀어버릴 생각이었다.

그 상황에 해원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 나갈 줄 몰랐다. 수빈은 두 손으로 해원의 어깨를 꼭 잡고는 난간에 기대놓고 상체를 힘껏 밀쳤다. 해원의 어깨 너머로 24층 아래가 훤히 눈에 들어오기가 싫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상체를 훌 일으키며 한쪽 발로 수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호텔에서부터 해원은, 아니 수빈은 그 사람이 해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원이 아니었다. 절대 해원일 수 없었다.

호텔에서부터 해원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는 수빈을 계속 따라다녔다. 나중



는 것이다. “대일병원이 애네 집이에요. 바로 이 근처잖아요.”

화영이 답답한 듯 나서자 선우가 얼른 가로막았다.

“제가 대일병원에 응급 준비 부락을 드려놨어요. 바로 근처예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애써주는 선우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솟을 뻔했지만 수빈은 억지로 참았다. 수빈이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설명해야 할 것이었다. 왜 해원과 자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사고라고 거짓말을 해야겠지만 사고는 아니

엔 화장실까지 따라왔는데 수빈이 손을 씻자 그 여자도 나란히 옆에 서서 손을 씻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옆의 해원이 수빈을 보고 웃고 있었다. 너무 섬뜩해서 수빈은 얼른 밖으로 나와 크리스탈볼룸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거울에 비친 해원의 오른 쪽 손목에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

이건, 어릴 때 할머니 집 펠떡 끓는 가마솥에 화상 당한 흉터야. 팔 위쪽은 수술로 아주 깨끗해졌는데, 손목은 수술 부가 얇아서 쉽지가 않다. 고등학교 1학년 돌이 짝이 되었을 때 해원이 손목시계를 벗고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차고 다녀.

하지만 선행했던 그 자국이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고래보러 떠나자”... ‘우영우’ 덕 뜬 핫플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후광효과 특출 팬나무·김밥집 등 촬영지 인기... 방문객들 장사진 ‘나는 고래’ 사진전·고래바다여행선도 덩달아 웃음꽃



●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경남 창원시의 창구 대신면 북부리 동부마을 ‘소덕동 팬나무’ ● 서울스카이 5주년 미디어아트 특별전 ‘나는 고래’ 포스터. ● 우영우김밥집. 창원시/롯데월드 서울스카이/백은빈 인스타그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팬나무, 김밥집 등 촬영지와 극중 우영우가 좋아하는 고래까지 덩달아 인기다.

‘우영우’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로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3위, 일본-대만-홍콩-태국-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등 20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9위를 기록하여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수령 500살 경남 창원 동부마을... 천연기념물 가능성

드라마 7, 8화에서 소덕동 마을의 보호수로 등장하는 경남 창원 동부마을 ‘우영우 팬나무’는 드라마로 큰 인기를 얻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렸다.

드라마에 나오는 팬나무는 마을에서 자란 이들의 추억이 한껏 서린 보호수다.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는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서 잔치 한번 안 연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다.

드라마에서 로펌 ‘한바다’는 마을 개발 계획에 맞서려는 소덕동 마을 주민들의 수입 부락을 거절하려 했으나 팬나무 곁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에 반해 이를 수락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멋진 나무다. 한바다는 도청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 ‘태산’을 상대로 고전했지만 우영우의 활약으로 승기를 잡는다. 일부의 술수로 막혀 있던 팬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동부마을 팬나무는 높이 16m, 둘레 6.8m로 어른 네댓사람이 손 맞잡고 안아야 할 만큼 크다. 나이는 500살로 추정된다. 드라마에서처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에 나선다고 밝혀지며 더욱 핫해졌다.

동부마을은 드라마 속 우영우의 대사와 우영우와 좋아하는 고래그림 벽화로 마을을 꾸미고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우영우의 단골대사 ‘기러기·토마토·스위스·인도인·별종별’과 고래가 그려진 벽화 앞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여행객들로 붐빈다.

장남원 사진작가 40여년 촬영작품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고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래’다. 끊임없이 고래 이야기를 하는 통에 부친 우광호가 첫출근하는 우영우에게 직장에서 고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우영우가 첫 출근을 할 때는 지하철을 따라오는 고래가 그려지고, 우영우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흑등고래가 등장한다.

우영우 4화에서 우영우는 회의실에 걸

린 초대형 흑등고래 사진에 감동해 눈물을 보인다. 국내 수중 사진계 1세대 장남원 작가의 작품 ‘나는 고래’ 사진이다.

이 장면이 방영된 후 우영우 마니아들은 장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당대 서울스카이에 몰려들고 있다.

전시는 21일까지다. 장 작가는 1979년부터 40여년간 세계의 물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중에서 고래를 촬영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비로운 바다 세상에서 우영하는 고래를 미디어아트와 갤러리 형식으로 재해석했다.

울산 장생포 국내 유일 고래관광지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고래바다여행선도 덩달아 인기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실물 고래골격과 포경유물이 전시된 고래박물관, 국내 최초 돌고래수족관을 보유한 고래생태체험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고래바다여행선이 특히 인기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달 27일 올해 고래바다여행선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올해 정기운항을 시작한 고래바다여행선은 지난달 24일 73번째 운항만에 승객 1만명을 넘어섰다.

여름휴가와 방학 등 성수기를 맞아 고래바다여행선은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울산항 연안투어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고래탐사 프로그램을 기존 8회에서 12회로 증편 운항한다. 8월 초는 본격적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 먹이군이 형성돼 고래 발견율이 높아지는 시기다. 매년 전체 고래 발견 사례의 약 50%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됐다.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인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고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실제 고래문화특구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행궁동김밥집, 팬들이 찾았다

“김밥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는 김밥을 사랑하는 김밥집 딸이다. 집에서, 밖에서도 늘 김밥만 고집한다.

우영우 마니아들은 극중 우영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우영우김밥’을 현실에서 찾아냈다. 수원 팔달구 행궁동의 한 일식집이다. 일식덮밥을 파는 곳으로 아쉽게도 김밥은 맛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우영우김밥집을 보러 수원을 찾았다면 화성행궁 성곽길을 따라 늘어진 감각적 카페, 소풍카페 등을 둘러보며 행리단길을 즐겨보자. 신선한 저녁에는 수원화성을 한 바퀴 돌아봐도 좋다.

스카이데일리/뉴스

내일의부 전 2권 1권 알파편, 2권 오메가편

폭락장에서 증명된 조던 김장섭의 통찰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누설급’ 부자 매뉴얼!

이 책은 이론만 그럴싸한 책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지난 수십년 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에서 회원들이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부자 되기 비법이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환율까지 국내투자를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 손 안에 넣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최대의 수익을 제갈량처럼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신묘한 계획을 제시한다! 당신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사고팔기만 하면 된다.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책이라 할 수 있다.

“뻔할 것이라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 책은 부자 티켓 그 자체다!”

출간 즉시
전서점
베스트셀러

조던 김장섭 지음 | 각권 16,000원
트러스트북스



조던 김장섭의 또다른 필독서! (각권 16,000원)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도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는 02)322-3409

